

#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여성/문학 출현의 사회문화적 배경 비교

방정윤 · 차선일\*

(하노이 사범대학교 · 경희대학교)

1. 서론
2. 베트남 사회에서 근대 여성의 등장과 배경
  - 2.1. 전근대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의 위상
  - 2.2. 식민지 근대와 새로운 여성 개념의 형성
3. 한국 사회에서 근대 여성의 등장과 배경
  - 3.1. 전근대 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위상
  - 3.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의 출현
4. 한국과 베트남에서 근대 여성 출현의 사회문화적 맥락 비교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 시대 한국과 베트남에서 근대 여성의 출현 배경을 비교 고찰하였다. 두 나라에서 근대 여성의 등장은 식민지 근대화를 표상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당시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 근대성의 성격을 보여준다. 공통점으로는 근대 여성의 등장이 서구적 근대화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산물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전통적 여성들은 민족과 국가 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 가부장제 질서에

\* 제1저자: 방정윤, 교신저자: 차선일

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신여성’과 ‘신시녀’로 불린 한국과 베트남의 신여성 담론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학생과 문인들이 주도했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에서는 여류문단이 형성되어 여성 작가들이 다양한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한 반면, 베트남에서는 남성 중심의 자력문단이 여성 문제를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주제에** 한국, 베트남, 식민지 근대화, 근대 여성, 신여성

## 1. 서론

베트남은 중국,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3대 유교 국가로 불린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불교나 이슬람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불교문화권 또는 이슬람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것에 비해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문화를 수용한, 동북아 유교문화권에 속한다.<sup>1)</sup>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근대화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공통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근대적 여성(상)이 등장하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화, 특히 외세의 식민 지배에 의한 타율적 근대화는 사회 전 분야에서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다. 종교, 정치, 문화 등 기존에 존속해 왔던 전통사회의 구조들은 과격한 해체의 수순을 밟으며 극심한 사회혼란을 수반하며 서구식 근대 사회체제로 재편성된다. 식민지 근대

1) 그러나 지리적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긴밀한 문화적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15세기 후반 이후 남진 정책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의 참파 왕국을 점령하면서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었고, 19세기 초 응우옌 왕조시대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향해 왔다. 요컨대 베트남은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에도 속한다.

화<sup>2)</sup>는 식민 지배와 착취의 결과이지만, 근대성<sup>3)</sup>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특정 계층을 억압하던 전통사회의 낡은 봉건적 관습과 신분제의 폐단을 해체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식민지 근대화의 해방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여성 문제이다. 근대 이전 한국과 베트남의 국가 통치 이념은 유교였다. 정치적 공공 영역은 유교적 이념과 예법에 따라 운영되었고, 궁정과 귀족계층의 삶 역시 유교적 관습과 제도를 준수하며 형성되었다. 봉건 정부는 유교 이념을 반영한 가정의례를 반포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종법제도에 기초한 유교적 가족제도 정착되었다. 유교 이념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종법적 가족제도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유지되었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이다. 따라서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 영역이 가족 제도이고 여성 문제였다. 전통사회에서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고, 가부장제 질서에 예속되었던 여성은 식민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전통적 가족이 강요하는 도덕관과 가치관에 저항하며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구성원이자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운동을 펼쳤다. 전통사회의 가정에 갇혀 있던 여성은 근대 교육을 받고 새로운 근대적 서구 문물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근대 여성을

2) 식민지적 근대성의 본질은 제국주의적 권력의 작동 원리를 은폐하고 있다. 근대적 제도의 도입은 식민 지배의 합리화와 효율적 통치를 가능케 하는 기제였으며, 식민주의자들에게는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략적 도구였다(정영화, 2003: 13-14).

3) 근대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비롯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역사적·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근대성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를 통상 단순히 서구적 근대화와는 다른 '식민지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한다. 한국의 경우,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양식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러한 근대성은 식민지 원주민에게 봉건적 질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제공하는 한다(고미숙, 2001). 예컨대 근대적 교육제도, 법률, 행정체계의 도입을 통해 전근대적 사회구조와 규율로부터 억압받던 개인들은 근대적 주체로 거듭났다. 이러한 근대적 제도와 담론은 식민지의 원주민들에게 매혹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암묵적 승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탄생했다. 근대 여성이 출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근대의 대립, 남성과 여성의 갈등, 전통적 가족 질서와 관습의 해체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근대 여성의 출현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는 작업은 곧 근대화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

본 연구는 식민지 시대 한국과 베트남에서 근대적 여성<sup>4)</sup>이 출현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두 나라의 근대적 여성의 문화적 역사적 함의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식민지 근대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무엇보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양국의 문화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베트남 사회에서 근대 여성의 등장과 배경

### 2.1. 전근대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의 위상

지금까지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논의들이 축적되었고,<sup>5)</sup> 그 역사적 타당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베트남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이는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한다(유인선, 1982: 167). 베트남 민족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닌 능력을 신뢰하고, 그 권리를 우대하였는데, 특히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민족 서사의 중심에는 항상 여성의 존재가 각인되어 있다. 베트남의 역사에서 여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최초

4)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근대 여성 개념은 식민지 시기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식민지적 근대성'이라는 복합적인 개념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근대 여성은 제국주의적 지배가 동반된 서구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이중적 맥락을 동시에 지닌다(김경일, 2004).

5) 전통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의로, Ta Van Tai 1981; John K. Whitmore 2011; Insun Yu, 1990; Tran Quoc Vuong 1972 참조.

의 사례로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어우 꺼(Âu Cơ)를 들 수 있다. 어우 꺼는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 반랑(Văn Lang)을 세운 흥 브영(Hùng Vương)의 어머니이다. 신화에 따르면, 어우 꺼는 락 롱 편(Lạc Long Quân)과의 사이에서 커다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100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후 락 롱 편과 어우 꺼는 각각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무경 편, 2007: 17-23). 베트남 건국신화의 특징은 부계와 모계의 이야기가 동등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sup>6)</sup> 일반적으로 건국신화는 남성신격이 여성신격을 흡수하면서 부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베트남 건국신화는 여성신격이 그대로 남아 있고 모계 혈통에서 민족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국신화의 서사적 논리는 베트남의 전통사회가 모계사회 또는 양계적 사회임을 보여준다(유인선, 2018: 22-23).

한편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베트남 민족 서사의 주인공은 여성이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여성 설화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선 독립 투쟁의 서사라는 점이다. 기원 전 1세기 중엽 중국의 지배에 저항한 쯩짜(Trung Trắc)과 쯩니(Trung Nhi) 자매의 이야기는 베트남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민족 독립영웅의 서사이다. 쯩 자매에게 독립투쟁의 용기와 애국심을 심어준 것은 어머니로서,(이윤범, 2010: 163) 이 영웅 서사에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모계적 혈통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쯩 자매와 함께 싸운 여성들, 즉 여성장군인 타인 티엔(Tháp Thiê), 레 천(Lê Châ), 티에우 호아(Thiêu Hoa), 밧 난(Bá Nà) 등도 영웅적인 인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19세의 어린 나이에 용맹을 휘날렸던 소녀 영웅 짜에우 티 쩌(Triệu Thị Trinh), 나라를 구하기 위해 두 남편을 섬긴 등 번 응아(Đương Văn Nga) 왕비의 이야기 등(이윤범 2010: 164-165) 여성의 용기와 모계사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여성영웅의 이야기들은 베트남 민족서사의 주류를 차지한다.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모권에 기반한 여성의 중심적 위치와 민족영웅 서사에 드러나는 주도적 역할 등 여성의 지배적 위상은 중국의 지배를

6) 100명의 자식들을 똑같은 나눈 것은 양계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흥 브영이 어우 꺼를 따라간 점이나 락 롱 편을 따라간 아들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계적인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받는 북속(北屬)시기 이후 유교가 전파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처음 유교가 유입된 목적은 베트남을 지배하기 위해 지배층의 관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응웬 다이 트 편저, 2018: 73). 때문에 유교는 주로 지배계층의 문화로 뿌리를 내렸고, 민간의 기층문화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조흥국, 2019: 237).

베트남 사회에 유교적 문화와 의식이 사회 전반에 토착화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이다. 리 왕조와 레 왕조는 유교, 특히 송나라의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충, 효, 예와 같은 유교적 이념을 장려하기 위해 『국조형률』 등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국가정책으로 실시하였다(이기동, 2020: 360). 이후 유교는 19세기 말까지 베트남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고, 베트남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려 베트남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베트남 사회의 구조를 형성한 것은 상당 부분 유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정재현, 2020: 97).

레 왕조 이후 19세기 말까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은 유교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지배 계층에서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는 유교적 가족 질서에 따라 규정되었다. 가부장적인 종법제도 아래서 여성은 삼종지의(三從之義), 즉 결혼 전에는 부친,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의 사망 후에는 아들에게서 의존해야 하는 종속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1663년에 반포된 칙령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우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교육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미덕으로 권장되고, 남편이 혼계하면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 남편이 법을 어기더라도 아내는 이를 고발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을 고발할 경우 아내가 처벌을 받았다(유인선, 1997: 31-32). 레 왕조 시대에 여성의 지위를 유교적 이념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여조형률(黎朝刑律)』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경우, 아내는 변방에 유배되는 형벌에 처해졌다(유인선, 1982: 170).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 살인 모의를 한 것이 입증되면 참형이 내려졌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체벌할 권리가 있었고, 아내에게 죄가 있

을 경우, 죽여도 무방했다(조흥국, 2019: 238). 또한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요청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부여되었고, 만약 아내가 제멋대로 남편을 떠나면 취실비(炊室婢)라는 도형에 처해졌다(유인선, 1997: 35).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3년 동안 재혼할 수 없었다. 아내는 결혼 후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도덕관이 법률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유교적 질서 아래 여성의 위상은 19세기 초 응우옌 왕조 출범 이후에 다시 강화되었다. 응우옌 왕조는 중국 청나라의 법인 『대청율례(大清律例)』를 모방하여 『황월율례(皇越律例)』를 제정하고 가부장권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유교 도덕의 삼강이 강조되었고, 특히 지배층 사이에서는 주자가례(朱家禮)를 기반으로 한 가훈이 점차 보급되었다(조흥국, 2019: 238).

## 2.2. 식민지 근대와 새로운 여성 개념의 형성

### 2.2.1. 근대 여성 교육의 제도화와 여성 지식인의 등장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는 가부장적인 관념은 베트남 사회에서 모두가 따라야 할 도덕적 규범이었다. 여성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었다.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은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묵인해야 했다. 여성은 상류층이라 해도 국가의 공직을 얻을 수 없었고, 제도교육 내에서 배움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 가정에서 그들이 받는 교육이란 기껏해야 여성이 갖춰야 할 행동 규범을 배우는 것일 뿐이었으며,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은 매우 드물었다. 여성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일 뿐이었다(정재현, 2020: 97).

이러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는 계기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프랑스의 식민 지배였다. 식민 지배는 베트남 사회에 서양의 사상과 학문과 기술을 보급시키고 근대적인 학교교육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베트남에 도입된 서구식 학교 교육은 베트남 사람들을 문명화한다는 동기 외에 식민 행정을 위한 토착 인력

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서구식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식민 정부의 현지인 관료들은 점차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농민층과 구분되는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이들 현지 엘리트들은 근대적 교육을 통해 자국의 피식민 현실과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나갔다.

민족주의 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프랑스에 대항하는 무장 투쟁으로, 당시 베트남은 여성에게도 프랑스인들에게 저항하는 무장 투쟁에 동참하도록 촉구했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민족의 대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였다.

또 다른 노선은 소위 민족자강론으로 근대 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신(Duy Tân)’ 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이 낳은 성과 가운데 하나는 1907년에 하노이에서 문을 연 ‘동경의숙(東京義塾, Đông Kinh Nghĩa Thục, 1907.3~1909.11)’이었다(노영순, 2004). 근대적 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베트남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최초로 여성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여교사도 채용하였다(정재현, 2020: 98-99). 동경의숙은 식민당국의 탄압으로 1년을 넘지 못하고 폐쇄되었지만, 민족독립운동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노선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깊이 뿌리내렸다.

식민지 시기 베트남 사회에서 여성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육정책을 통해서이다. 프랑스 식민당국은 공교육의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였다. 191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 알베르 사로(Albert Sarraut, 1872~1963)는 ‘인도차이나 공교육 일반 규정’이 공표하였고, 이 법령에 따라 각 성에 여학생 전용 초등학교를 하나씩 설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정재현, 2020: 99).<sup>7)</sup> 이 정책으로 인해 초등교육이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1920년대에 ‘인도차이나 공교육 일반 규정’에 따라 초등 의무교육을

7) 물론 프랑스 식민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교육하기 위한 여성 교육의 목적과는 부관하다.

받고 자란 세대의 지식인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1915년부터 프랑스 식민당국은 전통적 학교를 폐지하기 시작했고, 1919년에는 전통적 유교 교육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구식 교육 및 학교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1914년 837개 학교 52,000명에 불과했던 초등학생의 수는 1924년에는 3,178개 학교, 전체 초등학생 수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Nhiều tác gia, 2017: 219-223). 이 시기 교육과정은 한자 및 한문 학습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프랑스어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리학, 역사 등 서구적 학문과 지식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지식계층은 유교 경전을 배우지 않고 근대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로 성장했다.

이들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 가운데 여성은 남성보다는 적었지만, 점점 증가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31년에 베트남(코친차이나, 톤킹, 안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38,984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약 13%에 달하였다(남학생은 253,710명).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여성의 수는 더 적었지만, 그중에서도 대학까지 가거나 프랑스에서 유학한 여성도 나왔다(정재현, 2020: 104).

페트루스 키(Petrus Ky)는 적극적으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정신과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학교 개설을 제안했다(Nhiều tác gia 2017: 216). 프랑스 식민당국은 각 지방에서 여자를 위한 프랑스-베트남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Nhiều tác gia, 2017: 216).

이와 같이 프랑스 식민지기에 여성교육 정책이 확대되고, 제도교육으로 전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교육받은 여성 계층(여학생, 교사, 언론인, 작가)은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권 등 인권에 대한 근대적 지식이 풍부하였고 전근대적인 봉건제도의 억압적 규범에 저항하였다.

학교에서 글을 배운 여성들은 신문, 잡지, 책의 독자가 되었으며, 스스로 집필자가 되기도 하였다. 베트남 최초의 여성 신문은 스영 응우엣 아인(Sương Nguyệt Anh, 1864~1921)이 1918년 2월에 창간한 주간

지 『느저이쥬』(Nữ giới chung 女界鐘)이었다(정재현, 2020: 104). 그녀는 어려서부터 한문교육을 받았고, 신식 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목소리를 냈다. 『느저이쥬』은 곧 폐간되었지만, 10년 뒤인 1929년 5월에 창간된 『푸느편반』(Phụ nữ tân văn, 婦女新聞)은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느저이쥬』과 『푸느편반』 사이 10년 동안 식자층 여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 독자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933년부터 『푸느편반』은 응우옌티끼엠(Nguyễn Thị Kiêm), 응우옌티찡(Nguyễn Thị Chính), 판티바익번(Phan Thị Bạch Vân) 같은 새로운 여성 집필진이 주도하면서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논조로 바뀌었다. 이후 1934년 12월 프랑스 당국에 의해 『푸느편반』이 강제 폐간되고, 이후 여성지의 명맥은 『푸느티어담』(Phụ nữ thời đàm, 婦女時談)(1930~1934)이나 『단바머이』(1934~1936) 같은 신문들에 의해 이어졌다(정재현, 2020: 106).

이러한 여성신문들은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전통 윤리와 관습을 비판하며, 처첩제, 조혼, 매매혼 같은 관행과 여성에게만 정절을 요구하는 윤리를 거부했다. 1920~30년대 베트남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여성에 대한 기존 관념은 서구적 개념에 의해 도전받으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 2.2.2. 근대적 도시 문화의 형성과 발달

베트남의 근대화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함께 시작되었다. 1858년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고 1885년 응우옌 왕조가 프랑스의 보호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정치, 군사, 경제 등 전 영역을 장악했다. 문화영역에서는 계몽운동과 개화문명운동을 전개하며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비판하고, 서구문화를 보편화시켰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와 함께 베트남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프랑스 식민시대에 이루어진 급속한 도시화는 베트남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정치적, 문화적, 특히 경제적 목적 하에 전국에 걸쳐 대도시를 건설하는 일련의 정책을 수행

했다. 1877년 사이공, 1888년 하노이와 하이퐁을 1급 도시로 전환하는 법령을 공포하고, 이후 남딘성(Nam Dinh), 하이즈엉성(Hai Duong), 빈성(Vinh), 후에성(Hue), 달랏성(Da Lat), 켄터성(Can Tho) 등 2급 및 3급 도시가 연이어 생겨났다. 식민 정부는 이러한 도시들에 궁전, 사무실, 개방형 학교, 극장, 자본주의 기업을 건설하였고, 공장, 공장, 상점 및 무역 회사를 여는 데 자본을 투자했다(Đào Duy Anh, 1992: 78).

도시화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변화를 이끌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발달과 시장경제의 발달, 도시문화의 확산 등은 여성을 가정과 촌락에서 도시 중심가와 시장으로 진출시켰고 식모, 직공, 공창과 같은 새로운 일에 종사하는 기회를 부여했다(김종욱, 2009: 14). 도시화로 인해 여성의 상업활동을 촉진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도시에 사는 상류계층의 여성은 자유연애, 남녀평등 등 서양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고, '신시녀(新時女)'로 불리며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서 당대 문화를 선도했다(응웬 티 탐, 2005: 172).<sup>8)</sup>

프랑스 식민주의 아래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도시 환경은 세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도시 인구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각에 바탕을 둔 도시 문화의 형성이다. 전통적인 관습과 종교에 기반한 문화는 도시인들의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상은 부조화를 이루었다. 도시계층의 사람들은 식민주의를 통해 유입된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며 전통문화와 이질적인 도시문화를 발달시켰다. 둘째, 시장경제에 기반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도시 환경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셋째, 도시환경에서는 저널리즘, 출판, 교육(학교제도) 등 수많은 새로운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을 조성했다. 이러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현대 서구로부터 많은 새로운 사상을 수입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Nhiều tác giả, 2017: 325).

### 2.2.3.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근대 여성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베트남의 식민지기에 형성된

8) '신시녀(新時女)'는 베트남말로 가이 떤 터이(gai tan thoi: 신시대의 여성)이다. 떤 터이(tan thoi: 新時)는 새로운 시대를, 가이(gai)는 여자를 의미한다.

국어문학은 반식민 저항으로서 전개되었다(전혜경, 1993: 13).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대한 무력저항운동이 실패한 후, 베트남 지식인들은 알파벳화된 베트남어인 국어를 통해 국민을 교육하여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대항하는 문화적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프랑스 식민지기 국어문학은 반식민 저항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국어문학의 전개과정에서 여성의 운명을 다룬 다수의 작품들이 등장했다. 신구 문학 혼류기(1913~1930)에 나온 호앙 응옥 파익(Hoàng Ngọc Phách, 1896~1973)의 『또 땀(Tổ Tâm, 소심, 1925)』과 신문학정착기(1930~1945)에 나온 카이 흥(Khai Hưng, 1886~1947)의 『느어 쯡 쑤언(Nhà chững xuân, 반청춘, 1934)』과 넷 링(Nhất Linh, 1907~1948)의 『도안 뚜엣(Đàn Tuyêt, 단절, 1935)』, 『라잉 룡(Lạnh Lùng, 냉랭, 1936)』 등이 그것이다(전혜경, 2016: 612).

최초의 근대소설로 인정받는 『또 땀』은 액자소설로, 서술자 ‘기자’(ký giả, 記者)가 친구인 레 타이 번(Lê Thanh Vân)에게서 들은 담 투이(Đạm Thủy)와 또 땀(응우옌 티 쑤언 란, Nguyễn Thị Xuân Lan)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문학과 시사에 대해 토론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만, 이미 집안에서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있었고, 결국 부모의 반대로 이별하게 된다(최빛나라, 2018: 117-118). 여주인공 ‘또 땀’은 근대적 자유연애를 지향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를 극복하지 못한다(전혜경, 206: 612).

넷 링은 낭만주의 문학을 지향한 자력문단(自力文壇, ty lue vân đoán)의 리더로서, 호앙 다오(Hoang Dao), 타익 람(Thach Lam), 카이 흥(Khai Hưng), 테르(ThéL), 뚜 머(Tú Mo) 등과 함께 1933년에 결성한 그룹이다. 자력문단은 구시대의 문학과 단절하며 서구화를 통해 신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다(최귀묵, 2017: 220). 자력문단은 그룹의 기관지인 『풍화(Phong Hóa)』에 10가지 지침을 담은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봉건 의식의 가혹함과 가혹함에 반대하고 젊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사랑과 결혼을 위해 투쟁하며, 가부장적 봉건가족제도의 억압에서 여성을 해방시킬 것을 선언했다(원종찬 외, 2017: 389).<sup>9)</sup>

9) 자력문단은 기본적으로 신식 교육을 바탕으로 신문학을 창조하고, 자각적인 창작활동

자력문단의 작가들은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근대 전환기 베트남 사회에 나타나는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충돌을 다루었다. 자력문단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개인적인 열망과 외부의 억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이들에게서 여성은 기존 전통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근대적 표상이었다.

넷 린의 『도안 뚜엣』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젊은 여성 로안(Loan)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로안은 남몰래 중(Dũng)을 사랑하지만 정혼남인 턴(Thân)과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 로안은 시어머니와 심각한 고부갈등 속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는다. 로안은 아이를 낳지만 병에 걸리고, 미신을 믿는 시어머니의 잘못된 치료로 아이가 죽고 만다. 이후 로안은 시댁과의 다툼이 격화된다. 어느날 남편과 다투던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죽게 되고, 로안은 살인자로 법정에서 서게 된다. 무죄로 풀려난 로안은 중을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면 소설은 끝난다(최귀묵, 2017: 221-222).

법정에서 로안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이 사건의 책임이 “시어머니의 낡은 윤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곧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로안은 자유연애를 지향하지만,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갈등에서 로안은 “누구도 나를 욕할 권리가 없고 누구도 나를 때릴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주장을 분명히 내세우는 적극적인 근대적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안 뚜엣』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하는 개인 의식을 가진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최귀묵, 2017: 223).

요컨대 베트남에서 근대 여성의 출현은 식민지 시대의 외부적 영향뿐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 변화와 여성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식민지 시기에 경제적 독립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며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국가로, 농업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핵심

을 권장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전통문화와 융합시켜 베트남의 문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들은 가족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서 농업 및 상업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위치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화를 겪으며 여성들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상업 활동과 서비스 산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기존 가정 내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베트남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프랑스 식민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여성 교육 확대는 여성의 정치적 인식을 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근대적 여성의 등장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여성 주체들이 민족 독립운동과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당시 베트남 여성들은 정보 전달, 선전 활동 및 독립운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역할뿐 아니라, 무장 저항에도 참여하며 식민지 저항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이 단순한 사회적 보조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의 정치적 자각과 주체성은 이후 베트남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기여하였다.

베트남 여성들의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영역에서도 두드러졌다. 특히, 1920~30년대에는 여성들이 문학과 저널리즘 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여성 문제를 둘러싼 담론이 형성되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여성 작가와 지식인들이 가부장적 전통과 봉건적 관습을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 및 사회적 위치 개선을 주장하는 글들을 활발히 발표하였다. 신문과 잡지 같은 대중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들이 독자이자 저자로 참여하면서 여성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단순히 남성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아를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대적 주체로 부상하였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근대 여성은 단지 식민지 시대의 외부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내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각과 능동적인 참여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여성들

의 사회적 역할 확대는 외부의 영향과 함께 내부적인 노력과 변화의 결과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3. 한국 사회에서 근대 여성의 등장과 배경

#### 3.1. 전근대 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위상

오늘날 한국사회의 남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적인 성규범은 조선시대의 성규범과 문화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정착된 유교적 종법((사)한국여성연구소, 2005: 68-69)<sup>10</sup>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의 가장 하위에 위치한 노동자이자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에 예속된 존재였다. 여성들은 부모가 정해진 남자와 결혼하며 대부분 샅바느질이나 빨래 등 힘겨운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본인의 생존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여성의 지위는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한 출산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었으며, 남성의 외도를 묵인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의 성공적인 삶은 열녀(烈女)와 효부(孝婦)로 제한되었으며, 여성들의 삶의 공간은 규방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이덕주, 1990: 36-37).

조선 시대의 여성은 정절을 지키고, '삼종사덕(三從四德)'의 규범을 준수해야 했다. '삼종'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사덕(婦功, 婦容, 婦言, 婦行)'은 일, 용모, 말, 행동거지에서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을 규정하였다. 남성 지배층은 말과 글,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주입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여성에게 복종과 억압을 강요하는 부계적인 가족제도 아래서 여성들

10) 종법이란 적장자 위주의 가계 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를 말한다. 종법제도는 장자에 의한 가계 계승을 우선시하므로 부계성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고, 주자학은 이 종법제도와 결합하여 강력한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완성하였다.

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입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대응전략은 열녀(烈女)가 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열녀은 여성 억압의 산물이지만, 다른 한편 여성들이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방법이기도 했다. 열녀가 되는 것은 충신이나 효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회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도덕적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열녀가 되는 것은 조선의 여성이 자기를 실현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절과 정조를 지키는 여성의 모범적 범례를 수립하여 유교적 이념에 맞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열녀전'이 제작되어 유포되었다. 그 가운데 정통 유학자인 박지원(朴趾源)의 『열녀함양박씨전』은 수절과부로 정욕을 누르며 살아온 노년 여성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젊은 과부가 사랑에 대한 욕망과 도덕적 제도 사이에서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투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최지녀, 2007: 1). 박지원은 부부의 연을 맺어보지도 못한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고 목숨을 끊은 하층민 여성의 정조를 칭송하면서도, 하층민 여성까지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며 관습을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열녀함양박씨전』은 조선 후기에 죽음으로 정조를 증명해야 하는 여성의 고통스런 삶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적인 가족제도의 억압성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시대 여성이 지닌 모순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고려시대 역시 유교적 이념에 입각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며,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강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자녀안(恣女案)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는 간통을 범한 여성들의 명부로, 여기에 등재된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고 바느질하는 노비로 삼았으며, 자식은 벼슬을 하지 못했다(정현백 외, 2016: 79). 간통을 한 남성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사회에 여성에 대한 성규범이 더욱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 내에서 여성의 위상은 조선시대의 여성의 처지와는 달랐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삶이 가부장적 종법제도 속에서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만을 강요받았다면, 고려시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집안의 딸로서의 위치가 더 확고했다. 고려시대는 처가살이가 혼인

의 일반적인 형태였고, 혼인은 남성이 출세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였다. 예컨대 사위나 외손자가 음서나 공음전시의 특권 및 상벌에 함께 연루될 수 있었다(이영애, 2012: 83). 고려시대 개인의 출세에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본가, 처가, 외가 등과 연결된 친족관계였다. 고려를 세운 왕건의 부인이 스물아홉 명에 이른 것은, 호족세력에 대한 회유 또는 연합책이기도 하지만, 처가의 역할과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친족구조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사)한국여성연구소, 2005: 65). 이러한 친족제도 아래 고려에서는 남녀 구분상속이 이루어졌고, 제사 역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정현백 외, 2016: 85-87). 이처럼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력을 미치는 친족구조가 유지되면서 고려시대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상당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관계에서도 일정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다. 고려 여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고리대와 무역 등 상업활동에 종사하여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정현백 외, 2016: 93; 최병욱, 2006).<sup>11)</sup>

그러나 고려사회는 공적 정치의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은 배제되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공적 역할을 부담하여, 정치적 영역에 참여한 모습과는 대비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관료체제가 정비되면서 여성들이 공적인 질서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중국은 일찍부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남성중심적인 중앙집권체가 고착되면서, 관등과 관직을 남성이 독점하게 된다. 중국의 국가체제를 수용한 고대국가들 역시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정비하지만, 선덕여왕(善德女王), 진덕여왕(眞德女王), 진성여왕(眞聖女王) 등 3명의 여왕들을 배출한 신라와 같은 고대국가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확고하게 유지했다. 이것은 신라 사회가 권력 계승에서 성별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정현백 외, 2016: 42-45). 권력 계승에 부계와 모계가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웅녀(선주민)와 환웅(이주민)의 결합이라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사)

11) 더불어 고려시대 여성의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전통시대 베트남 사회에서 여성이 무역과 교역 분야에서 활동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면모와 유사성을 지닌다.

한국여성연구소, 2005: 64).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들을 살펴보면 시조를 낳고 길렀던 시조모의 존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단군신화의 웅녀, 고구려의 유화, 백제의 소서노, 신라의 선도성모, 대가야의 정견모주가 그들인데, 이들은 신적인 속성을 지닌 비상한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었다(정현백 외, 2016: 37). 더불어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제정에서 여신이나 여사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비중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고대사회에서 여성은 고려나 조선에 비해 정치와 종교 등 공적 영역에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조선시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고, 조선시대에 마련된 유교적 가족제도와 사회질서는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며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하부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 3.2.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의 출현

### 3.2.1. 식민지 근대화와 '신여성'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지속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근대 사회로 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애국계몽기의 조선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생활공간이었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구국투쟁에 참여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예컨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당대 여성들은 구국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외된 것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김경일, 2004: 41-60). 그들은 민족과 국가의 사업에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박용옥, 1984: 141-142).<sup>12)</sup>

애국계몽기에 이러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부터 기독교의 전파와 서구 사상의 보급되면서 근대적 여권 사

12)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중 63.6%는 양반가의 부인들이었다. 구국운동에 참여하려는 '여성'은 민족과 국가의 기표 아래 하나의 동일한 집합체를 형성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계급, 신분, 지역 등에 따라 분절된 측면이 있었다.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이주아, 2020: 321-322). 특히 개화파 사상가들과 독립협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격적 존재로서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여성관을 해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김경일, 1998: 17).<sup>13)</sup>

애국계몽기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 변화는 공적 역할에 한정되었고, 아직 개인으로서의 존재나 사회활동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다만 여성에 대한 근대 교육이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들은 개인으로서의 사적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유연애, 자유결혼 등을 주장하며 가정과 모성에 한정되었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1920년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른바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신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신여성은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근대적 개인으로서(신영숙, 1989: 14), 사회적 성 역할과 위상에서 전통적인 여성과는 차별화되는 존재를 말한다. 신여성은 애국계몽기의 여성들이 국가의 공적 역할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공적 역할의 기회가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낸 여성들을 지칭하였다(윤영옥, 2005: 204). 이들은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인습에서 벗어나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며(오숙희, 1988: 129) 식자층으로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신여성이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근대 교육과 도시문화, 그리고 전통과 대립하는 근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 3.2.1.1. 여성을 위한 근대 교육의 확대

남성에게 종속된 전통적인 여성은 근대화와 더불어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서, 남성과 독립된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학

13) 물론 개화파 사상가들의 여성관은 여전히 가족과 모성이라는 틀을 허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들은 전통적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국익과 결부되는 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교는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식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통로였으며, 학교 교육은 여성이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신여성은 간단히 말해 근대 교육을 받은 여학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이명선, 2003: 12). 여성에 대한 근대적 신식 교육은 이미 조선 후기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sup>14)</sup> 학교라는 제도교육의 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0년대부터였다. 하지만 1910년대까지만 해도 신식 학교에서 교육 받는 여성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근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학교를 다니는 여성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한다(김명임 외, 2024: 125). 총독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23년 현재 초등교육 수준인 보통학교의 여학생 수는 관립, 공립, 사립 합하여 45,279명으로 집계된다. 272,544명에 달하는 남학생과 비교할 때 1/5에 불과한 수치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7개교에 1,370명, 1925년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9개, 총 2,022명이다. 총독부 자료가 아닌 조선 언론의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925년 현재 전국 여학생은 18개교에 총 2,795명이다(김명임 외, 2024: 148-149).

이후 1942년에 이르면 공립 여학교가 21개(재학생 약 6,902명), 사립 여학교가 12개(여학생 5,269명)가 설립되었고, 전체 33개의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12,171명으로, 전체 남학생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등교육 수준에는 28개 대학, 직업학교, 특성화학교의 총 학생 5,504명 중 여학생이 1,255명이었다. 1943년에 이르면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수는 전체 215만 중 약 689,677명이었다. 고등학교에는 사립 및 공립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100개가 넘는 학교에 전체 학생 10만 명 중 여학생이 22,276명을 차지하였다. 1912년에 여성공립 학교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 여학생 수가 불과 116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양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렇게 식민지 조선에서 학교 교육의 확대는 ‘신여성’으로 불리는 근대적 여성이 출현하는

14) 한국 최초의 여자 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은 1886년에 설립되었다.

15) 식민지 시기 여성 교육의 정책과 현황에 대해서는 강혜경(2015: 187-195) 참조.

사회적 기반을 제공했다.

### 3.2.1.2. 도시문화의 전파와 유행으로서의 '신여성'

신여성은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존재였다. 신식교육과 신문물이 존재하는 도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여성이 될 수 없었다. 김기진은 “현대의 여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 도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할 수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김기진, 1925: 28)이라고 말했다. 도시 태생으로서 신여성의 주요 활동 무대는 당대 근대성을 가장 빠르고 첨예하게 드러냈던 경성이었다.

서구적 도시 문화는 신여성이 영화를 관람하고, 카페를 방문하고, 변화한 거리를 산책하며,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등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안했다. 달리 말해 신여성은 근대적 신식문물들, 예컨대 전차, 카페, 극장, 백화점 등 도시 공간을 지배하는 근대적 상징물 사이를 주유하며 그것들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욕망의 주체였다. 1920년대 대중매체는 여성을 위한 광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화장품과 향수를 비롯하여, 부인병약, 염색약 등 여성을 소비자로 호명하는 상업광고들이 등장하고, 또한 다양한 의복과 머리 모양이 소개되며 여성의 소비를 부추기도 하였다(윤영옥, 2005: 214-215). 처음에 이러한 소비를 일삼는 신여성들은 의상이나 머리 모양, 화장과 같은 유행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주체적 의식의 소유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통속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서구적 도시문화가 점차 팽배하면서 신여성의 이미지는 단순한 모방과 과시적 낭비를 일삼는 부정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김경일, 1988: 27). 결국 신여성은 근대의 신식문물을 향유하는 세련된 모던걸이면서, 허영과 허위의식, 성적 방종을 저지르는 타락한 존재라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취급되었다.

'신여성'의 근대적 도시문화의 한 현상이었다. 신여성은 서구 또는 근대에 대한 열렬한 추구를 배경으로 등장했고, 근대성의 표지 그 자체가기도 했다. 도시 문화는 태생적으로 일본을 경유한 서구적 근대의 산물이다.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 서구적 근대성은 새로운 문물로서 동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세속화와 타락을 조장하는 소비문화로 비판

받았다. 근대문화를 향한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근대성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신여성에 대한 이중적 시선에도 반영되고 있다.

### 3.2.1.3. 자유연애와 여성해방담론

신여성의 등장은 근대 여성해방의식의 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특히 1920년대 조선에 전해된 여성해방사상은 개인 혹은 주체로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변화를 요구하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중요하시한다는 점에서 애국계몽기의 여성운동과는 구별된다(이명선, 2003: 13).

신여성 담론을 주도했던 잡지 『신여성』의 전신인 『신여자』 창간한 김일엽은 여성의 자유를 외쳤고, 이 잡지의 창간호에서 인습적 도덕을 타파하고 인격적 각성을 하여 여성의 완전한 자기 발전을 꾀하고 새문명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경숙은 여성해방의 물질 토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성해방의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실현 방법을 강구하였다.

우리(여성)의 해방은 다만 정신적 해방이 안이고 경제적 해방을 요구합니다. 이론적 자유해방과 남녀평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생활에 들어서 해방적 생활을 하고 평등적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적어도 해방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즉 자기도 사람이 남자와 가튼 사람이다 한 것을 자각한 사람이고 그 자각은 실현할나면 무엇보다도 제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오 경제적으로 독립 할나면 불가분 직업에 종사치 안하면 안되는 결론에 답할 것입니다(김경숙, 1925).

『신여성』은 여성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잡지로, 이들은 정기적인 토론을 하며 글을 썼고, 당대 여성을 둘러싼 담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여성』은 조선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혼인제도의 비판, 자유연애 결혼의 긍정,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가부장적 편견과 인식에 대한 비판 등(이명선, 2003: 14)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제도와 악습을 비판하는 일관된 논지와 주장을 펼쳐나갔다. 『신여성』이 다룬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비롯하여, 가정문제, 아동양육, 남녀의 동등권과 그 대우, 과부의 처분과 보호, 여성의 정조문제, 독신여자와 그 대우 등

구체적이고 다양했다. 남녀평등에 기반한 여성해방의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었다.

1920~1930년대에는 전통적 가정질서가 붕괴되면서 근대적 가족 전통의 문제가 불거졌다. 별거, 독신, 이혼 등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문제는 유교적 봉건이념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허용되지도 않았다. 1929년 10월 25일 『동아일보』의 사설에 따르면 1928년 조선인 전체의 이혼건수는 약 8,220건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신여성』이 주도한 여성해방사상과 운동은 근대의 변화된 사회적 여건에서 여성에게 닥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망하기 위한 담론을 생산하였다.

### 3.2.2. 식민지 근대문학에서 신여성 형상화

‘신여성’이 문화담론의 주된 급부상한 시기는 1920년대이다. 개화기 이후 신식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920년대에 이르면 여학생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들 신식 여학생이 곧 신여성으로 불리며 되는데, 1920년대 여학생과 신여성의 주된 이념은 자유연애 담론이었다. 즉 1920년대 신여성은 곧 봉건적 인습과 남성중심적인 억압에 저항하며 사랑을 통해 자유의 권리를 요구했다.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들은 식민주의에 저항하며 민족해방 담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을 타파하고, 가부장적인 전통적 관습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대의 여성 작가들은 가족제도와 결혼 제도에 의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이 제약받는 낡은 도덕과 관습을 비판하면서 개성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1918)는 일본 유학까지 한 신여성 ‘경희’의 이야기다. 경희는 혼인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다. 경희는 계속 공부를 이어가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꿈꾸지만, 그녀의 부모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결혼하여 훌륭한 며느리로 살아가길 원한다. 봉건적 인습과 신교육에 의한 각성된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희의 갈등은 1920년대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였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작가 나혜석은 경희의 목소리를 빌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신여성의 자기 주장을 펼친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인류의 여성이다.” (나혜석, 2001: 121) 경희는 봉건적 인습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의 길을 따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리라 다짐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정, 2007: 364).

백신애의 「나의 어머니」(1929)에서도 결혼을 중심으로 신여성의 주체적 삶과 부모를 대변되는 전통적 관습과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윤영옥, 2015: 333-334). 주인공 ‘나’는 신교육을 받고 교원이 된 인물로, 여자청년회를 조직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다. 이에 ‘나’의 어머니를 딸리 감옥에 갈까봐 걱정하며, 사회활동보다는 결혼을 하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돈많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고, 사회활동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나의 어머니」의 여주인공은 신교육을 통해 사회의식에 눈뜨고, 자유연애를 통해 스스로의 결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근대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최정희의 「인맥」(1940)은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는 여성의 내적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가족의 윤리와 사회적 도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주인공의 애정은 이미 인습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이다. 여주인공은 친구의 남편에게 마음을 고백하지만, 남자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이 작품은 여성의 혼외의 애정 갈등 문제를 주제로 내세우면서 사회 윤리의 기준을 내세워 그 개인적인 욕망을 좌절시킨다. 「인맥」의 여주인공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규범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여성이 추구하는 내적 욕망이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관습에 속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권영민, 2002: 534). 「인맥」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가는 여성이 사회 도덕과 유리되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당대 신여성에게 놓인 과제를 침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맥」의 근대적 여성은 자유연애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봉건적 인습이 아닌 보편적인 사회윤리와 충돌할 때 여성의 바림직한 행동과 선택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 여성문학은 ‘여류문단’이라는 세력을 형성하며 식민지 근

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재현하였다. 여류문인들의 대거 등장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여성이 여성 스스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서사적 문법을 만들어냈다.

#### 4. 한국과 베트남에서 근대 여성 출현의 사회문화적 맥락 비교

이상의 논의에서 한국과 베트남에 근대적 여성상의 출현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논의의 결과를 비교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적 여성상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여성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베트남은 봉건 시대에 유교, 특히 송나라의 주자학을 받아들여 국가의 통치이념을 삼았다. 유교는 한국과 베트남 전통사회의 여성의 삶과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두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농업에 기초한 경제적 하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여성에게는 가족과 사회에서 일정한 독립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유교의 이념은 여성에게 순종과 희생을 강요했고, 정치적 공적 질서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놓였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종법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엄격한 도덕적 규범 아래서 여성의 삶은 금기와 처벌의 법률로 통제되고 단죄되었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은 서구를 통해 유입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근대적 사상과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근대 지식층은 전통적 규범과 결별하는 것이 근대화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2. 19세기 후반부터 한국과 베트남은 서구 열강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국의 독립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각각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점령당하고, 토착 지식인들은 식민 권력에 대항하여 국가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투쟁에 나섰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국권을 되찾기 위해 문명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근대 교육을 통한 문화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민족해방 투쟁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해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족독립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한 변화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 투쟁에 나서면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투쟁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은 유교적 가족제도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3.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서구화와 근대화를 향한 발전 과정을 경험했다. 근대화는 경제, 정치 분야부터 이념, 문화에 이르기까지 봉건 사회의 제도와 관습에 반대하고 서구의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화는 각각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두 나라 모두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창조적으로 혼용하여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4.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상황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변화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두 나라에서는 식민 지배의 불가피한 결과로 도시화가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역동적인 변화와 풍부한 저널리즘, 교육의 확대, 현대적이고 참신한 생활 방식이 탄생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형성을 촉진했다. 특히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 즉 교육과 사회 참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20세기 초 한국과 베트남에서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여성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언론, 문학, 심지어 사회, 정치 활동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여권이 신장되었다. 이 시기 여성문제는, 즉 모든 봉건적 속박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다. 근대적 여성성은 여성의 사회적 삶에 대한 재현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삶 자체의 표상이다.

6.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초 한국과 베트남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반대하는 새로운 여성 모델이 등장했다. 언론, 특히 신문과 문학을 통해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사용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이를 ‘근대 여성’이나 ‘신시녀’, 한국에서는 ‘신여성’이라고 불렀다. 이 새로운 여성은 새로운 교육의 영향을 받아 서구 사상과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적 여성상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식민지 근대화를 겪으면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식민지 주체는 달랐고, 이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아시아 문명권의 국가이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19세기까지 베트남과 프랑스는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이념 체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명에 속했다. 따라서 현지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문화는 매우 낮선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20세기 초 베트남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 전반, 특히 여성 문제가 서로 다른 조건과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한국과 베트남은 서양과의 접촉의 성격과 서구화 과정이 다르다. 한국이 주로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구 문화를 수용한 반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통해 서구의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초기에 근대화를 이룬 아시아 강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양적 문명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일본식으로 서구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식민정책에서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한국 여성에 대한 현대 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여전히 여성을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의 방향으로 교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베트남에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침략해 낙후된 안남 땅에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전파시켰다.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이 낡은 생각과 생활방식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강력하

게 일깨웠다. 반대로 국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착 남성 지식인들에게는 근대적 여성에 대한 담론이 그들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3.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여성 작가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들은 근대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글을 쓰고,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여성 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학 분야에도 여성의 진출이 이루어져 여류문단을 형성하였고 이들은 민족문학의 작가이자 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베트남 문학에는 20세기에도 소수의 여성 저널리스트, 사회운동가, 시인을 제외하고는 여성 작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력문단의 경우 여성에 관해 글을 쓰는 작가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문학에서 창작의 주체의 성별은 근대적 여성 담론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차이를 만들었다.

## 5. 결론

식민지 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여성의 등장은 그 자체 근대화를 표상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두 나라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 근대성의 성격과 의미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과 베트남의 근대 여성의 등장과 그 성격은 많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주목할 공통점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질서를 벗어난 근대 여성을 등장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통한 서구적 근대화만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전통적 여성은 우선 민족과 국가의 해방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가부장제 가족제도 안에 갇혀 있던 지위를 벗어나 사회적 구성원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이후 민족해방투쟁이 문화적 투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면서 근대 교육이 확대되고, 근대 문물과 지식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근대 여성의 출현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만들어졌다.

‘신여성’과 ‘신시녀’로 불렸던 한국과 베트남의 신여성 담론을 주도한 것은 근대적 학교 교육을 받은 여학생과 문인들이었다. 특히 근대 문인들은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근대 여성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한국은 여류문단이 형성되면서 여성 작가들의 약진과 활약으로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였던 반면에, 베트남은 자력문단이 등장하였지만, 그 규모가 작고 여성문인들이 아닌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재현하지 못하고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여성해방과 자유연애를 담아냈다.

## 참고문헌

- 강혜경(2015). 일제시기 여성의 고등교육과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설립, 〈숭실사학〉 34, 183-219쪽.
-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 김경숙(1925). 여자해방과 우리의 필연적 요구, 〈신여성〉 12.
- 김경일(199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 1998, 11-44쪽.
- \_\_\_\_\_(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 김기진(1925). 구식 여자와 달른 념, 〈신여성〉 3(6), 28쪽.
- 김명임 · 김민숙 · 김연숙 · 문경연 · 박지영 · 손유경 · 이희경 · 전미경 · 허보운(2024). 그 많던 신여성은 어디로 갔을까, 한겨레출판.
- 김윤정(2007). 1920년대 신여성의 ‘사랑’과 근대적 결혼 제도의 함수관계, 〈한국언어문학〉 62, 359-376쪽.
- 김종욱(2009). 20세기 전반 베트남 농촌여성의 경제 활동과 지위, 〈동남아연구〉 19(2), 3-28쪽.
- 나혜석(2001). 정월라혜석전집, 국학자료원.
- 노영순(2004). 러일전쟁과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유신운동, 〈역사교육〉 90, 2004, 127-154쪽.

- 무경 편(2007). 박희병 옮김,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돌베개.
- 박용옥(1984).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신영숙(1989). 일제하 한국 여성 사회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종찬 · 김영순 · 두전하 · 류티썩(2017).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청동거울.
- 유인선(1982). 월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연구> 25(2), 167-181쪽.
- 유인선(1997).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가족제 수용과 변용: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5(1), 25-50쪽.
- 유인선(2018). 베트남의 역사, 이산.
- 윤영옥(2005).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국어문학> 40, 201-224쪽.
- \_\_\_\_\_ (2015). 한국 근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신여성 표상, <현대문학이론연구> 61, 327-351쪽.
- 응웬 티 탐(2005). 베트남 신여성의 사랑과 결혼, <동남아연구> 15(1), 171-202쪽.
- 이기동(2020). 이기동 교수의 유학 오천 년 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 이덕주(1990). 한국교회 처음여성들, 기독교신문사.
- 이명선(2003).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2), 5-37쪽.
- 이영애(2012). 현대 여성학의 이해, 법문사.
- 이윤범(2010). 베트남 여성과 사회적 역할, <동남아 연구> 20(1), 161-190쪽.
- 이주아(2020). 개항기부터 1919년 민족운동시기까지의 여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도전과 응전, <기독교교육 논총> 63, 317-345쪽.
- 전혜경(2016). 베트남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베트남 여성의식의 변모양상, <외국문학연구> 61, 497-525쪽.
- 전혜경(1993). 베트남 문학작품에 나타난 베트남 여성상, <아시아문화> 9, 109-126쪽.
- 정영화(2003). 1930년대 여성문학의 근대성 인식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현(2020). 식민지 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새로운 젠더 문화를 향한 모색, <서양사론> 146, 91-121쪽.
- 정현백 · 김선주 · 권순형 · 정해은 · 신영숙 · 이임하(2016).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 조흥국(2019).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소나무.
- 최귀목(2017). 문학의 창으로 본 베트남,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병옥(2006). 전통시대 베트남 여성의 교역활동, <동양사학연구> 96, 149-174쪽.
- 최빛나라(2018). <또 땀(Tó Tăm, 소심)>의 연애와 작자 의식, <동남아연구> 28(2), 117-144쪽.
- 최지녀(2007).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문학연구> 16, 1-13쪽.
- 응웬 마이 트 편저(2018). 김성범 옮김, 베트남 사상사, 소명출판.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강의, 동녘.

- Đào Duy Anh(1992). Việt Nam văn hóa sử cương, NXB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Insun Yu(1990).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Asiatic Research Center.
- John K. Whitmore(2011). Social organization and Confucian thought in Vietnam,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2), 296-306.
- Nhiều tác giả(2017). Lịch sử Việt Nam, 8 tập,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 Nhiều tác giả(2017). Lịch sử Việt Nam, NXB Khoa học xã hội, Hà Nội.
- Ta Van Tai(1981). The status of women in traditional Vietnam, Journal of Asian History 15(2), 97-141.
- Tran Quoc Vuong(1972). Truyền thống Phụ nữ Việt Nam, Nhà xuất bản Phụ nữ.

## 필자 소개

성 명 방정운  
소 속 하노이 사범대학교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00-12 201동 104호  
전자우편 wjddb50@gmail.com

성 명 차선일  
소 속 경희대학교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401호  
전자우편 madeinone@naver.com

## Abstract

# Comparison of the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the Emergence of Modern Women in Korea and Vietnam

Bang Jeong Yun · Cha, Sun-il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emergence of modern women in colonial-era Korea and Vietnam. In both countries, the appearance of modern women represented a sociocultural phenomenon symbolizing colonial modernization, reflecting social conflicts, contradictions, and the nature of modernity. A shared aspect is that modern women emerged not only due to Western-influenced modernization but also as products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raditional women in both countries participated in national struggles, breaking free from patriarchal norms and becoming active societal members. Discourses on the “New Woman” in Korea and Vietnam, led mainly by educated female students and writers, also differed: Korea developed a female literary community where women writers voiced diverse female experiences, whereas Vietnam’s male-dominated literary scene portrayed women’s issues from an enlightening perspective.

**[Key words]** Korea, Vietnam, Colonial Modernization, Modern Women, New Women

투고일 2025. 02. 10 / 심사일 2025. 03. 12. / 게재확정일 2025. 03. 19